

월간 범어교회보 Vol. 435

늘 푸른 숲

2025. 9

캄보디아 캄퐁툼, '함께함'으로 힘을 보태다
그 기억의 자리에서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나의 한 구절, 그분을 의지하는 나무로 살아가자
교회 119주년, 믿음의 발자취

김아브라함 선교사 인터뷰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영광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the 119th Anniversary



1906. 9. 9
the Founding Anniversary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9절

성찬 : 기억하고 기념하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지훈 담임목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찬양의 후렴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원치 않지만 피할 수 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난을 나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통 가득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삶을 통해 기꺼이 고통받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며 여전히 기도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자신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공감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사랑방과 각 기관모임과 다양한 봉사 공동체와 같은 많은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곳에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모임에는 세상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옆에 보이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누리시는 9월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을 열며

9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묵상에 잠기곤 합니다. 이 계절,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찬송가, ‘Abide With Me’는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찬송은 죽음을 앞둔 성직자 헨리 F. 라이트가 영원한 존재와의 변치 않는 동행을 간절히 바랐던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찬송은 영국 FA컵 결승전에서 수많은 관중과 선수들이 승패를 초월한 위로와 힘을 갈망하며 함께 불렀고, 심지어 다종교 국가인 인도의 국경일에도 연주되었습니다. 종교와 문화를 넘어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범어교회는 때로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예측할 수 없는 어둠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꿔 왔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며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걸어온 믿음의 여정은, 바로 찬송가가 전하는 변치 않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삶으로 증명해 온 귀한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119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한결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세월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갈 우리 교회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찬송가에 담긴 고백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 **변치 않는 동행**이 언제나 우리 삶과 범어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 조성희A 집사(교회보팀)



2025 September | Vol. 435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 03 목양칼럼
- 04 9월을 열며 _ 조성희A 집사
- 05 목차
- 06 여름성경학교 |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닮아 _ 손지훈 학생
- 07 여름성경학교 | Summer gogo9 _ 김희정C 집사
- 08 여름수련회 | Time to Shine _ 박찬희 학생
- 09 여름수련회 | His Kingdom Come _ 박효정 학생
- 10 단기선교 | 베트남 랑선에서 만난 순수한 웃음들과... _ 김미숙B 집사
- 12 단기선교 | 캄퐁툼, ‘함께함’으로 힘을 보태다 _ 이희경 집사
- 14 내 영혼의 찬양 |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_ 교회보팀
- 16 나의 한 구절 | 이세정 집사
- 18 청년부 | 동행의 기쁨 _ 마재민 청년
- 19 청년부 |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 ... _ 박혜린 청년
- 20 설립 119주년 | 범어교회 설립 119주년과 믿음의 발자취 _ 김강석 집사
- 22 공감의 장 | 2025 연합예배를 기억하며, 청년들을 연결하신 주님께 감사!
- 24 인터뷰 | M국 김아브라함 선교사
- 27 책 소개 | 산책(冊), 우리 같이 걸을까요?
- 28 행사단신 | 8월의 범어
- 30 범어 ‘인(人)’의 얼굴 / 범어범어
- 31 범어동정 / 행사 안내

제435호 | 발행일 2025년 9월 7일

발행인 이지훈 | 편집인 이영규 | 2025년 교회 표어 “아름다운 동행”

주소 42083 대구 수성구 청호로84길 71 | <http://pomo.net>

Tel. 053) 667 8800 | Fax. 053) 667 8888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닛시 (Jehovah-nissi)

더위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로 여름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사람의 행사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선생님들과 학부모와 친구들의 기도의 깃발을 높게 흔든 ‘승리해 챌린지’가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져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은혜의 깃발 아래 머물렀습니다. 소년부의 한 친구의 소감문을 통해 그곳에서 기다리시고 만져주신 하나님의 순간을 돌아봅니다.

드디어 설렘과 기대를 안고 소년부 여름성경학교로 출발했다. 이 설렘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낼 자유시간을 친구들과 보낼 수 있어서이다. 도착 후 개회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니 이번엔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되었다. 저녁기도회 때는 주일 예배와는 또 다른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 형과 누나들이 마음을 담아 찬양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곳에서는 ‘주여! 아버지!’라는 기도를 전혀 어색하지 않게 온 마음으로 외칠 수 있었다.

둘째 날의 물놀이장은 역시나 모든 더위와 피로를 날려주었다. 슬라이드, 술래잡기, 물총놀이 등을 하는 동안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살펴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했다. 저녁 기도회는 부모님께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

고 기도하는, 수련회 때만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조금 났다. 아무도 모르게 닦고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기도회 마지막에는 다 함께 큰 원을 만들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친구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 말씀이 표지판, 곧 방향인 것을 배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드려야겠다.

• 손지훈(소년부·6학년)

Summer gogo9, “Rock Solid Truth”를 마치며



2025년 여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어예배부 Summer gogo9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gogo9은 “매일 아침 9시, 유튜브에서 만나요!”라는 의미로, 8월 여름방학 기간 중 10일 동안 매일 아침 9시 영어예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다음 세대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기획되고 운영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주제는 “Rock Solid Truth”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처럼 단단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의 마음에 심고자 하는 귀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날로 혼란스러워지는 세

상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에 관한 이야기는 5가지 세부 주제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학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민했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돕는 손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어 챗트, 워십 댄스, 인형극, 상황극 등 아이들이 즐겁게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으로 복음을 풀어내고자 노력하였으며, 기획부터 시나리오 작성, 촬영과 편집까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0일간 매일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복음을 나누었고, 이어진 2주간의 주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헌신하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 김희정C 집사(영어예배부 부장)



Time to Shine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주 성호 리조트에서 은혜 가운데 중등부 여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방학 가운데 진행된 여름수련회는 저를 포함해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수련회가 진행되기 몇 주 전부터 이번 수련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 친구들과는 무엇을 하고 놀지 등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가 한주 앞으로 왔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내가 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안고 첫 집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걱정이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도사님께서 “이 세상은 밝아 보이지만 실상은 어둡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저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으로 하나님의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품고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강도사님과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과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찬희 학생(중등부·3학년)

His Kingdom Come

입시와 수능을 앞두고 불안해하며 수련회를 망설이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저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제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원하는 진로가 정말 주님의 뜻인지, 둘째는 나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강도사님은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면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뤄낸 것이 뭘까? 왜 공부를 해도 항상 불안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설교를 듣던 중 불안의 원인은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있으니 당연히 불안하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온전히 가야 해서 불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꿈은 먹고살기 위함인지 사명자가 되기 위함인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1 때부터 진로가 명확했는데 그 꿈을 이루고 싶은 이유는 돈과 안정적인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동안 설교를 들으며 그저 돈을 좇고 있는 나를 마주하게 되면서 ‘내가 너무 세상의 부와 명예만을 보고 있지는 않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이 들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시 원서를 한 달 앞둔 이 시점에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 후 기도회 중 내가 하고 싶은 진로나 원하는 비전보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저의 불안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은 제게 ‘**앞으로 청년이 되어서도 염려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라**’는 뜻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어둠을 끝내시고 길을 알려주시며,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제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에 불안했지만,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남은 수험생활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훗날 청년이 되어 이 글을 다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신 마음 안에서 진로를 선택한 제 모습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효정 학생(고등부·3학년)

베트남 랑선에서 만난 순수한 웃음들과 하나님의 은혜

이번 여정은 두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단기선교팀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하나 됨’을 위해 릴레이 기도와 매주 모여 사역 준비를 함께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소통을 원활히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전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번 선교를 통해 베트남과 우리 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매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4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북부 랑선 희망학교에서 단기선교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출국 전,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지만 기도로 예비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एको백 꾸미기’ 조장을 맡았고, 삼각김밥 만들기와 꽃 심기에도 함께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오카리나 연주와 비즈팔찌 만들기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 만난 랑선 희망학교 학생들은 작은 일에도 웃음이 터지고, 두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에코백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며 각자의 상상력을 펼쳤고, 삼각김밥을 만들 땐 모양이 망가져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꽃을 심는 아이들의 진지한 표정 속에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특별 손님’도 있었습니다. 현지 공안들이 처음엔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점점 다가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에코백을 만들고 삼각김밥을 맛보았으며, 오후에는 축구 경기까지 함께 뛰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와 사진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낯선 이들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됨’을 이루신 순간이었습니다.

날씨도 은혜였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름과 가끔 내리는 비로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섬김 속에 복음이 스며들게 하소서. 이 땅과 이 팀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닌 표정과 손길, 함께 흘린 땀과 웃음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요. 이번 랑선 단기 선교는 제게 ‘하나 됨’의 은혜를 깊이 새긴 시간이었고, 그 웃음과 눈빛은 제 마음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이제 제 일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작은 랑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 김미숙B 집사(성사모)



감풍툼, ‘함께함’으로 힘을 보태다

작년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함께 갔던 딸이 올해도 가고 싶다고 하여 보호자 역할 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엔 가족 모두가 함께하였고 팀원 대부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 의지가 되고 좋았는데 올해는 아는 분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팀장이 되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딸이 개인 사정으로 하차하게 되어 딸 핑계로 ‘나도 가지 말까’라는 마음이 잠시 들었지만 작년처럼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출발 3주를 앞두고 선교사님께서 땡기열에 걸리셔서 위독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며칠 뒤 고비를 넘기시고 회복 중이라고 하셨지만 혹시 무리하게 되실까 싶어 가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솔직히 땡기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원 대부분이 가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였고 선교사님 사모님께서도 오는 것이 힘이 된다고 하셔서 가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태국과의 전쟁이 터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경지대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전쟁지역에 선교를 가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발 전주 수요일까지 전쟁이 멈추지 않으면 캄보디아 선교는 취소되는 것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루 전인 화요일에 휴전이 되어 저희 팀은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프놈펜 공항에서 선교사님을 뵈을 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이셔서 걱정했던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은 밤늦게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5시 15분이 되면 어김없이 큰 찬양이 울려 퍼



지며 우리를 깨웁니다. 5시 30분에 매일 새벽예배를 드리는 데 기숙하는 어린 학생들도 모두 눈을 비비며 예배당으로 모입니다. 작년 선교 때 새벽마다 깨우는 찬양 소리가 힘들었지만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 찬양 소리와 맑은 목소리로 성경책을 읽는 현지 학생들의 모습이 그리워서 새벽예배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의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받는 모습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오전엔 센터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 팔찌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오후엔 인근 마을 교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간식을 나누며 이웃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박한 것에 즐거워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고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자 인근 불교사원에서도 음악 소리가 들려왔는데, 캄보디아인은 땅 넓이나 건물 크기로 신의 능력을 가늠하기에 교회보다 부지가 넓은 불교를 더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치부하기보다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선교가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적을 순 없지만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우리가 오는 것이 힘이 된다는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확실히 깨닫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시는 캄풍툼은 수도 프놈펜과 달리 한국 교민이 거의 없는 외로운 선교 사역지입니다.



게다가 함께 동역하는 지도자 몇 분이 기회가 더 많은 프놈펜으로 가려고 하는 어려움도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꾸준한 기도와 관심, 지원과 방문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캄풍툼 땅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는 범어교회 파송 선교지가 되기를 성도 여러분 모두 기도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희경 집사(디모데청년회)

그 기억의 자리에서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주님의 만찬’(Lord’s Supper)인 성찬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자기 몸을 떼어주시면서까지, 또 피를 부어주시면서까지 내어주시는 지극한 사랑하심의 증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한 교제’(Holy Communion)를 완성합니다. 그 교제의 완성으로 성도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Daily Bread)을 공급받을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먹을 떡인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3가지 이름을 가진 성찬을 온전히 받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목도한 한 목회자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진정한 ‘성찬의 상(床)’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Here, O my Lord, I see Thee face to face
(보나르의 찬송시)

오 주님, 제가 여기서 주님의 얼굴을 뵈옵니다.
이 성찬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만지고 받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은총을 단단히 붙들면서
저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금은 축제와 찬양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늘의 식탁이 저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잔치하고 축하하며 영원히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성찬은 비록 짧지만 빛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에서 저는 하나님의 떡을 먹습니다.
이 성찬에서 저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성찬에서 저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저는 죄를 용서받아
마음에 평안함을 새롭게 느낍니다.

이제 곧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상징은 사라지고
잔치는 그치고 지나가겠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의 방패이시며 태양이십니다.

성찬의 잔치는 계속 이어지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성찬은 저 위에 있는 기쁨의 잔치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장차 어린 양의 위대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사랑을 누릴 것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송가 228장)
(찬송시, 호레이셔스 보나르 1808~1889)

스코틀랜드 찬송시의 대가로 불리는 보나르 목사는 12대를 이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경건한 사람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로 알려졌다. 조국 교회의 분열의 시대를 관통하며 복음 전도자이자 작가로 일평생 영적 운동에 헌신하였다. 또한 사회개혁의 선구자였으며 그가 남긴 신앙 서적들은 현재까지도 명서로 읽힌다. 한국 찬송가에도 7편의 찬송시가 지금도 은혜롭게 불리고 있다.

어느 날, 그는 성찬 예식을 형식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성찬을 그저 자신의 설교 시간을 줄이는 지루한 절차라고만 생각하고, 아무 감동이 없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형제가 모두 목사였던 보나르 형제는 그때부터 서로의 교회에서 성찬 예배를 섬기기 시작했다. 형인 존 보나르 목사의 교회에서 성찬 예배를 도와 섬길 때마다 그는 이전엔 몰

랐던 깊은 영적 체험 안으로 들어갔다. 동시에 자신이 집례한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이어서 빈곤했던 성찬을 깊게 통회하였다.

그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신 상 위에서 그 은혜를 받아먹고 마시며 그분의 얼굴을 마주한 감동을 찬송시로 생생히 표현하였다. 한국 찬송가에 실린 그의 찬송시는 곡의 길이의 한계로 미처 다 싣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온전히 펼쳐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손에 받아서 든 그의 떨림과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의 고백은 어찌면 사도바울이 전한 이 말씀의 행간과 여백에 숨겨진 깊이까지 닿았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도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열두 돌비석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념하는 이유는 오직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곧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생생한 기억과 그 기념의 교차점에 세워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그 기념비의 글씨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그분의 임재하심의 기억은 나의 마음에 심긴 떨기나무의 기름이 되어 붉게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과 기념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야 비로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로 들어와 내주하시는 성찬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친히 베푸시는 성찬의 두렵고 떨리는 감격의 은혜 없이 들이키는 것은, 그분의 몸과 피가 아닌 그저 음식과 음료일 뿐입니다. 결코 지켜울 수 없는 이 성찬이 한 해에 몇 번 행하는 정기예식이 아니라, 성도가 매일 매 순간마다 삼키고 마셔야 하는 일용한 양식인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지길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 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8절)



“생각은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행동을 낳는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또한 생각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삶의 언덕을 만나며 무너질 때 나의 생각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여호와와 함께 하길 그 안의 쉼과 결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육하라 / 이디스 쉐퍼」



어릴 적부터 난 나무를 좋아했었다. 큰 나무를 보면 따스했다.
하나님을 영접한 후 나무는 하나님처럼 따스함이 느껴지는 것 같다.
생각이 절망으로 머무를 때 그분을 의지하는 나무는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하며 열매를 맺는다 한다.
그분을 의지하는 나무로 살아가고 싶다.

• 이세정 집사(바울청년회)

동행의 기쁨

처음 수련회 날짜를 공지 받았을 때는 무조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2주 앞두고 회사에서 휴가를 제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께 기도해 보자’는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 감사하게도 수련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조장을 맡아줄 수 있냐는 요청이 왔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들을 잘 이끌 수 있게 또, 제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8월 1일, 수련회 일정이 시작되었고, 임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별 활동뿐 아니라 연합 활동도 있어서 서로를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GBS 나눔에서 본인의 경험에 빚대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들으며 비록 삶의 일부분만 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다시 인지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팀 활동 후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지만 집회를 앞두고 주님께서 힘주심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새가족 동기에게 “저는 주님께 대해 잘 모르지만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말을 들으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지 기대하며 순종하는 마음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범어교회에 온 지 2년도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귀한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잘 적응하며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신 목사님, 임원들, 조장 및 섬김이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범어교회 청년2부 사랑합니다!

• **마재민** 청년(43대·청년2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 그 안에서 하나 됨을 누리며

청도 전도 여행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복음 전파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목표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가 청도에서 한 주된 사역은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특성상, 관계가 먼저 이어져야 했기에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르신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데 집중하는 전도였습니다.

첫날, 그늘 하나 없는 폭염 속에 집집마다 걸어 다니며 콩나물을 나눠드렸습니다. 다들 오후 내내 이어진 사역에 잔뜩 더위를 먹어 지쳐갔습니다. 팀원들이 분산되어있는 풍경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밤이 되어 함께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용기를 내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잡고 우리를 청도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날엔 마을 회관을 돌며 각자 준비한 트로트를 불렀고,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불안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내 마음의 평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눈을 마주하며 자꾸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된 일생을 살아온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옆을 바라보니 내성적인 자신들을 내려놓고 춤을 추면서 노래

를 부르고, 낯설지만 용기 내어 할머니들께 다가간 서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 그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 저의 소박했던 바람은 새로운 불꽃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난 또 다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선물해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박혜린 청년(46대·청년1부)

범어교회 설립 119주년과 믿음의 발자취

범어교회는 1903년 사월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은 박순이, 배양이, 조달숙 세 분의 여성도가 대구제일교회를 출석하다가, 1906년 9월 9일 마침내 범어예배당을 설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초창기에는 안의와, 방혜법, 부해리 선교사와 순회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도움 속에 작은 씨앗이 자라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성도들이 날로 더해지자 1916년에는 기와집으로 새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1935년에는 40여 평의 함석집으로 증축하여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성장하였으며, 여름성경학교가 열리는 날이면 아이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은혜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해방 후에는 양재엽, 양찬언, 박명석 목사가 맡은 자리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목회를 감당하였다. 특히 1964년 설명도 목사의 부임은 교회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교인 수가 300여 명에서 1976년에는 500여 명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다. 1969년 기존 예배당이 도로 부지에 편입되자, 벽돌 건물로 새 예배당을 헌당하며 신앙의 터전을 굳건히 세웠다.

1995년 장영일 목사 부임 이후에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특별기도회’와 ‘우리의 6가지 꿈의 행진’ 등을 통



해 교회가 영적 깊이와 사명의 폭을 동시에 넓히며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그 결실로 2006년에는 3,5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큰 신앙 공동체가 되었고, 2009년 설립 100주년을 맞아 새 예배당에 입당하여 감사와 눈물로 봉헌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다.

2022년 이지훈 목사가 부임하여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비롯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교회와 가정사랑’을 실천하는 목회 비전을 펼치고 있다. 범어교회는 오늘도 지역 사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작은 시작에서 출발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를 이끌어왔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유산을 넘어 더 큰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120주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소중한 기회다. 다가올 120주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더 큰 사랑과 봉사, 부흥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는 신앙의 축제가 될 것이다. 동시에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무엇보다 이 여정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길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 교회는 모든 성도와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감사의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김강석 집사(역사자료분과 분과장)



2025 연합예배를 기억하며, 청년들을 연결하신 주님께 감사!

바울, 디모데, 베드로 청년회가 함께 드린 연합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마치 아름다운 다리를 놓듯 연결된 이 시간은 우리 범어교회에 새로운 활력과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섬김과 헌신, 그리고 모든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진 연합예배의 은혜로운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연합예배를 제안받았을 때, 마침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반갑기도 하면서 막상 하려고 하니 걱정도 되었습니다. 일단 날짜를 정하고 첫 연합 회의를 하고 나니 모두의 적극적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고 잘 준비될 수 있겠다 싶어졌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던 회의 시간은, 큰 은혜와 깊은 연합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록 짧은 연합예배 시간이었지만 **모이려고 애쓰는 각 청년회의 모습에서 앞으로 더욱 부흥하는 청년회를 꿈꾸게 됩니다.** •김철수 집사(바울청년회)



주님! 바울, 디모데, 베드로 청년회의 연합예배를 통해 세대 간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 “브릿지(Bridge)”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청년들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든든한 다리 역할을 했고, 디모데 청년들은 그 다리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연결자가 되었으며, 베드로 청년들은 그 다리를 건너며 희망을 이어받았습니다.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늘의 감동과 감사가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않고, 범어교회의 119년 역사 속에

서 계속 살아 숨 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울, 디모데, 베드로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손을 잡고, 범어교회가 세대를 이어주는 브릿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허재문** 집사(디모데청년회)

이번 연합예배는 많은 분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기관이 한마음으로 준비하며 예배를 세워가는 과정 자체가 큰 감동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공동체로서의 하나 됨을 깊이 경험하며,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한 몸임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연합예배를 계기로 각 기관의 모임이 더 많이 알려지고 교회 차원에서 기관 사역에 조금이나마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황영돈** 집사(디모데청년회)

모이기를 폐하는 요즘 세대에서 각자의 불편함을 내려놓고 모이기에 힘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훈** 집사(베드로청년회)

다들 바쁜 와중에 세 기관의 임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 주신 각 기관의 리더님께 감사드립니다. 분열이 넘치고 증오와 열등감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는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신훈** 집사(베드로청년회)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선배님들을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들의 모습을 본받아 선한 영향력을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기관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던 분들과 새 가족분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연합의 자리가 잘 이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구유진** 집사(베드로청년회)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영광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올해 인터뷰 코너는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계기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담고자 합니다.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덟 번째 순서로 **M국의 M종족 성경번역으로 섬기시는 김아브라함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끄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대해 들었습니다.



Q. 선교사님의 가족 관계와 유년 시절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A. 저는 아내와 딸(한국나이 중3)이 있습니다. 유년시절엔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외가인 봉화에 있는 고향마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어머니 그 영향 아래에서 자라셨고 이후에 결혼하시면서 대구로 나와 삼성교회를 다니셨어요.



Q.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계기와 과정은요?

A.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찾아와 주신 건,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일들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8남매에 맏이, 어머니는 9남매의 맏이라 가정에 얹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3 때까지는 나의 일과 가정의 일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입이 열리고 선교에 대한 관심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다니던 삼성교회가 선교대구와 협력해서 선교에 노출될 기회가 많았어요. 또 전역 후에 한국기독학생회(IVF)를 통해 훈련받고, 선교한국 대회도 참여하면서 선교에 대한 맘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Q. 그 이후엔 어떻게 선교사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지요?

A. 성경번역선교회(GBT) 대구 지방회 간사가 교체되며 후임 간사를 구한다는 소식에 자원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경번역선교회(GBT) 간사는 자비량 사역이라 후원을 모아서 해야했어요. 장기적으로 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2년간 사역하면서 선교사님들과 주위분들이 신대원 진학을 권하셨어요. 98년 선교한국 대회에서 헌신했던 마음도 있었기에 장기적으로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2005년에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가면서 성원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주일학교와 교회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사역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담당하게 되는 부서에서 한 과정(주일학교 6년 또는 중고 등부 6년, 대학부면 4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딱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Q. 신대원 졸업 후에는 파송 교회를 통해 바로 선교사로 나가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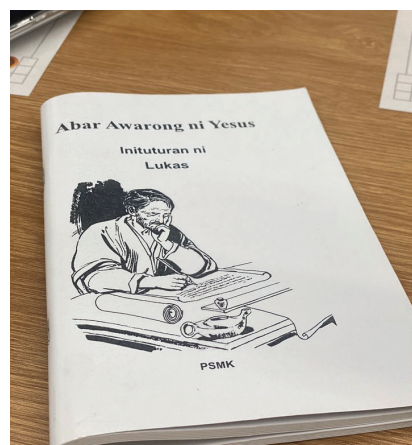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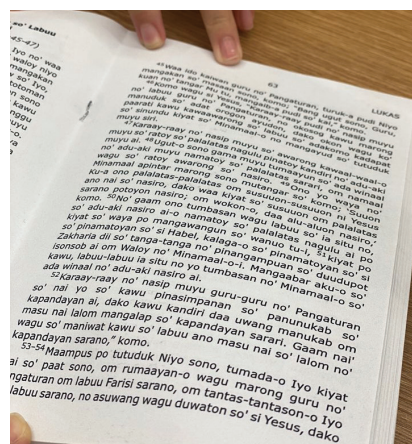
A. 아니에요. 졸업 후에 총회선교훈련(GMTI)을 받았습니다. 보통 한국해외선교회(GMF)의 GMTC 훈련(6개월 과정)을 많이 하는데,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라 GMTC에서 합숙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총회선교훈련(GMTI)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가정에 딱 맞는 훈련이더라고요. 그 이후엔 성경번역 선교사로 가기 위해 번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한동대학교 통번역 석사과정(2년)을 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훈련 과정을 지원해 주신 파송교회에도 너무 감사했어요.

Q. 성경번역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후 과정은 어떠했나요?

A. 모든 선교훈련을 마친 후에는 GBT(성경번역선교회 한국지부)에 허임을 받고, WBT(세계성경번역선교회)를 통해 성경 번역이 필요한 부족 중에서 지원 가능한 곳을 찾아(한국 선교사님들은 보통 아시아권이나 오세아니아권) 지원하면 최종 심사 승인 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한동대 석사과정 중에 만난 분을 통해 M국의 M종족의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였고, 총회 선교훈련(GMTI) 중에도 정탐을 M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M국을 지원했고 최종 승인을 받아 2013년 4월에 M국으로 출국했고, 현재 M부족의 성경번역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Q. 현재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M국에선 한 주는 M부족이 있는 정글에서, 한 주는 도심지역으로 내려와 번역작업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글은 도심지역에서 자동차로 7시간을 가야하는 산



첫 번째 번역 출판한 누가복음 쪽복음

인터뷰

간지대에 있어요. 이전까지는 비포장이었는데 2년 전에 포장되어 운전하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1000명 정도가 사는데 정글 속에 흩어져 있어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요. 주일 예배로 모이는 인원이 200명 정도입니다.

이곳은 호주 성공회 선교사님이 1960년대에 강을 따라 보트를 타고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1980년 초반에 큰 부흥이 있었고, 그 시점에 성경번역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번역의 기초가 놓여졌어요. 저는 처음 3년간은 이 부족 사람들을 알아가고 부족 언어를 배우는데 공을 들였고, 다음 4년



M부족 가는 길(차로 강을 건너며)



번역의 일상(M부족 말씀의 집에서)

간은 번역의 기초를 다졌어요. 실제 번역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어요. 누가복음 번역이 완성되는데 4년이 걸려 2022년에 족복음으로 누가복음이 편찬되었어요. 사도행전은 출판 전 점검단계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서신서도 번역중입니다. 앞으로 신약성경 전체가 완성되려면 8~1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Q. 번역의 일상과 어려움은 없나요?

A. 정글에 있을 때는 아침 8시에 시작하면 1시간 정도(늘 2~3시간 걸려요)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요. 이후에 4~5시간 동안 묵상한 말씀을 모어로(본문 3~4구절) 번역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 시간이 너무 은혜롭고 즐겁습니다. 반면에 성경번역 선교사는 성경번역이라는 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보니 선교의 여러 가지 필요들 중에 현지인 교회와 교인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간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선불리 다가갔다간 성경번역 사역 자체를 흔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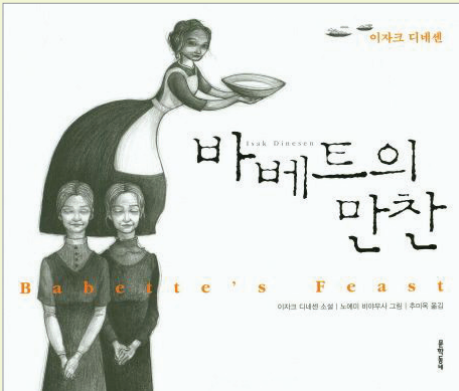
Q. 선교사로서 평생의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A.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입니다. 성경번역 사역이 단순히 번역이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전하는 것이기에 번역하는 부족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든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동행하는가가 중요해요. 특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보여줌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더라구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참된 영광으로 거듭나게 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 정리 교회보팀

우리 같이 걸을까요?

산책(冊)



바베트의 만찬 (이자크 디네센, 문학동네, 2012)

바베트가 차린 만찬은 꼭 닫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 시켰고, 사라져 버린 것 같았던 사랑과 배려의 감정을 되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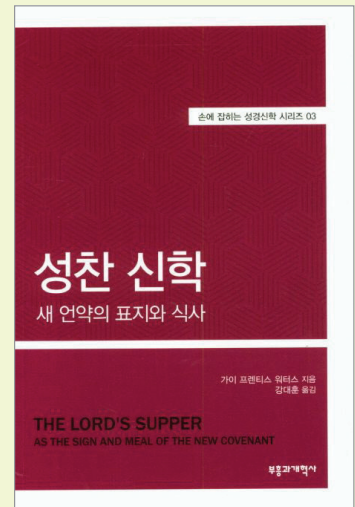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만한 힘은, 내 존재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아는 것과 타인 또한 그러함을 아는 것에서 오는 것에서 온다. 그 보이지 않는 가치는 반드시 주변을 물들인다.

“저는 위대한 예술가예요! 위대한 예술가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제가 최선을 다할 땐 그들에게 완벽한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바베트의 만찬 中

성찬 신학 (가이 프렌티스 워터스, 부흥과 개혁사, 2019)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식사를 하셨다. 식사는 언약을 확증하는 절차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선언이며,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향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주의 만찬은 새 언약 아래서 나누는 가족의 식사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 아버지와 만형의 감독과 보호 아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개인은 책임과 특권과 혜택을 얻게 되지만, 이 만찬은 혼자 먹는 식사가 아니라 가족 식사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의 만찬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창조되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성찬 신학 中



8월의 범위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pomo.net>



청년2부 여름수련회 | 청년2부 여름수련회가 “동행”이라는 주제로 7월 31일(목)~8월 2일(토) 경주 컨벤션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청년부 국내 전도여행(1차) | 새벽이슬 청년부 국내 전도여행(1차)이 8월 19일(화)~21일(목)에 청도 각남교회와 각남면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 3일(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하반기 자랑스러운 범위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영어예배부 ‘gogo 9’ 캠프 | 영어예배부 ‘gogo 9’ 캠프가 ‘rock solid truth’(확고한 진실)을 주제로 8월 4일(월)~17일(주일)까지 매일 아침 9시에 유튜브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부 국내 전도여행(2차) | 새벽이슬 청년부 국내 전도여행(2차)이 8월 25일(월) ~ 30일(토)에 제주도 나무와 숲학교(기독교 대안학교)와 제주 제이홈처치에서 있었습니다.



여름 해외 단기선교 | ① 베트남 : 8월 4일(월)~9일(토) ② 인도네시아 : 8월 4일(월)~9일(토)
③ 캄보디아(웰컴센터) : 8월 4일(월)~9일(토) ④ 남아프리카공화국(호프센터) : 8월 5일(화)~14일(목)



성경 암송쓰기 대회 및 율동 경연대회 | 23일(토)에 수성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암송쓰기 대회 및 율동 경연대회가 2층 예루살렘채플에서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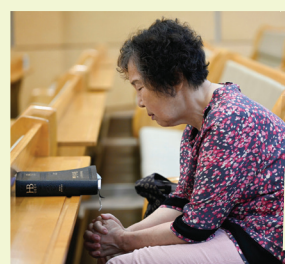


범어영성대학(UPS) | 29일(금)에 범어영성대학(UPS) 2학기 개강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범어‘인(人)’의 얼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

주님 은혜 안에서 귀하신 어르신들의 헌신과 기도로 교회 119주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어르신들의 크신 사랑 잊지 않고 그 바통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범어범어(泛魚凡語)

“피구에서 진짜 살아나는 길은 나를 향해 던져진 공을 안아서 받는 것이다. 공을 피하는 것은 잠시 살 순 있으나, 결국엔 또 다른 공격으로 이어진다”

사랑방 묵상 나눔 중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실패해도 사랑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 인생이다”

주일 설교 중

“우리에게 누군가를 붙여주신 이유는 그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다.”

주일 설교 중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몸으로 받아들이며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입니다.”

독서 모임 중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람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주일 설교 중

범어동정(泛魚動靜)

한 달 동안 범어인의 상황과 이동

■ 처음 나온 아기



안정민 (안용기, 이예진A)



박하성 (박상민, 장유진A)



정소원 (정부곤, 조영은A)

■ 출산

- 양효민 집사(임명성 집사) 득녀 : 8월 8일
- 강주영 성도(백종민 집사) 득남 : 8월 16일

■ 결혼

- 최창훈 집사(정제선 집사)의 딸 최나은 양 : 8월 2일(토) 2시, 서울 이스트센트럴타워
- 류시일 성도(정은영C 성도)의 장녀 류지원 양 : 8월 2일(토) 6시, 서울 신라호텔
- 최교섭 안수집사(박희정A 집사)의 장녀 최수진 양 : 8월 30일(토) 1시, M스타하우스

9월 교회 행사 안내

- 3일(수)~5일(금) : 거룩한 동행 2
- 7일(주일) : 교회설립 119주년 장영일 원로목사 설교
- 14일(주일) : 바울청년회 주관예배(오후)
- 21일(주일) : 청년주일
- 28일(주일) : 성례주일(학습, 입교, 세례식)
정기당회

9월 주일학교 행사 안내

- 27일(토) 10:00~13:30 : 교사 위로회
- 9월 28일(주일)~10월 12일(주일) : 교사 박람회

편집장 | 허윤정

부편집장 | 이영선C

편집위원 | 김동영, 김성애B, 김수민, 김정모, 김현성,

서정주, 손명진, 신규식, 여경진

자문위원 | 박용수, 배지연, 조성희A, 이창권

사진 | 미디어위원회

디자인 | design studio Jabez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범어교회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범어교회보 | 1986. 5. 25 창간



청년의 일상에 은혜를 불어넣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 12:1)

범어교회 예루살렘 채플
9/19금~9/21주일

청년 및 예배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9/19
금



저녁 8시

이정규 목사
시광교회 담임목사

저서 새가족반
야근하는 당신에게

9/20
토



오후 5시

기프티드 찬양집회

대표곡 오 주여 당신앞에
주를 바라보며

9/21
주일



오후 2시

진태현, 박시은 부부
토크콘서트